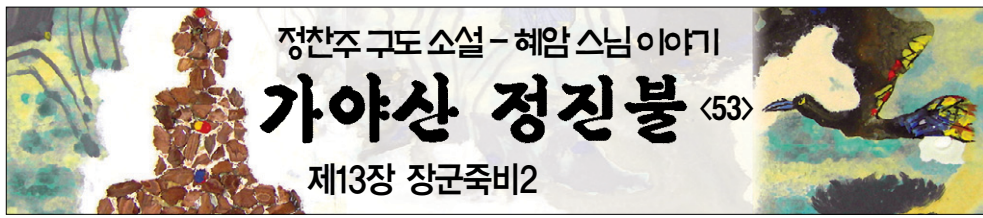


밥 많이 먹으면 공부 못 한다 마음으로 공부하라



해암은 해인사의 유나와 부방장, 방장을 하는 동안 선방청규를 철저히 지켰다. 원당암에서는 재가선방을 개원하여 틈틈이 지도하는 한편, 해인사 선방에서는 대중들과 똑같이 가부좌를 틀고 정진했다.

그때 해암을 선방에서 가장 가깝게 시봉한 수행자 중에 한 사람이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大梧)이다.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출가하기 위해 쌀 한 말을 지고 해인사를 찾았던 대오가 행자생활을 마치고 해인사 선방에 방부를 들인 것은 1991년도 하안거 때부터였다. 해암이 1996년에 방장을 사임할 때까지 지객 소임만 5년 동안 보았던 것이다.

“1992년도에 성철 방장스님 밑에서도 스님의 지시를 받아 방을 짜는 지객을 보았습니다. 1993년 성철 스님이 입적하시자 뒤이어 은사스님께서 해인사 6대 방장이 되시고 난 뒤부터 선방의 규율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은사스님께서 1993년 동안거부터 선방대중들에게 오후불식을 지시하셨거든요. 오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 선방대중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은사스님께서 수좌가 됐던 상좌가 됐던 밥 많이 먹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양간에서 물레 먹다가 흥국님이 난 수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부터는 오후불식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선방 방부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수좌가 있었다. 해암은 수좌의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다. 선방대중 앞에서 삼배를 시키어 참회시켰다. 오후불식은 해암이 체절에서 얻은 경험적(經驗的)이기도 했다. 저녁밥은 몸을 무겁게 하고 수마를 불러들이므로 공부하는 데 목이 되었던 것이다.

“오후에 먹는 것은 안 되고 물을 마시는 것은 허용

방장이 되신 후에도, 그러니까 93년 11월, 74세 때부터 77세까지 매 안거마다 단 한 시간도 옹맹정진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옹맹정진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4시에서 4시 10분 사이에 정확하고 한결같이 대중선방 가운데에 시자더러 의자를 갖다 놓게 하고 앉았습니다.”

대중들은 옹맹정진 중에 몰려오는 잠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자신도 모르게 앉은 자세가 흐트러지곤 했다. 그때는 어김없이 해암의 장군죽비가 즐기고 있는 스님의 어깨 위로 날아왔다.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면 신경이 창날처럼 날카로워지기 마련이었다. 밤 12시가 넘게 되면 장군죽비 소리만 들어도 마른땀이 나고 신경이 곤두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꼈던지 한밤중에 한 스님이 해암의 장군죽비를 맞는 순간 반사적으로 고함을 쳤다.

“큰스님, 한밤중에 조금 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째 한 숨도 자지 못했으니 그런 것 아닙니까.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봐주시기도 해주세요. 섭섭합니다. 큰스님은 존 적이 없습니까?”

한 스님이 해암에게 반항하듯 대들었다. 눈치를 보가며 슬쩍슬쩍 졸던 몇 명의 대중이 그 스님의 말에 은근히 동조했고, 다른 대중들은 놀란 채 가부좌를 풀었다. 그러나 해암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장군죽비를 또 다시 내리쳤다. 그러자 그 스님이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해암은 그 스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선방 분위기를 수습한 뒤 간절하게 당부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요. 일대사를 해결하려는 대장부 중에 대장부가 아닙니까. 수좌의 길을 걸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 정도의 힘든 고비를



그림 · 최문정

옹맹정진 중에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 적도 있었다. 이번에는 선방에서 찰종 소임을 맡은 수좌가 장군죽비를 들었는데 해암이 졸았던 것이다. 찰종 수좌는 영웅심리가 발동하듯, 아니면 자신의 소임을 과시하려는 듯 해암의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대중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사실, 장군죽비는 졸지 말라고 자극을 주는 방편인데, 찰종의 태도는 폭력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런데 대중이 더욱 놀란 것은 해암의 태도였다. 자세를 고쳐 앉은 해암이 나직하게 말했다.

“죽비를 치더라도 예의를 갖추시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뱉은 ‘예의’라는 말에 상황이 반전됐다. 찰종 수좌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고, 대중들은 ‘역시 큰스님이구나!’ 하고 신심을 냈다. 이 광경을 본 대중끼리 포행시간에 수군거렸다.
“다른 노스님 같으면 무색하고 창피하여 선방을 나갔을 것이요.”
“선방을 나가 두어 시간 동안 마음을 다스린 뒤 들어왔겠지요.”
“이런 일로 어느 노스님은 대중선방에서 다른 처소로 옮기신 적이 있긴 해요.”

해암은 후배 수좌들에게 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그렇다고 조는 모습을 굳이 숨기려고는 안 했다. 몸의 현상과 정신의 작용은 달랐다. 평생을 늙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눈사람이 녹는 것처럼 몸이 생리적으로 허물어졌다.

그러나 해암은 자신의 의지를 끊임없이 추스르곤 했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장군죽비를 든 수좌가 가까이 다가서면 한 걸음 전에는 반드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정신만은 깨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마저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부터인가는 의자를 선방 가운데 놓고 앉아 참선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자 앞으로 고꾸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시자가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몸이 앞으로 넘어지던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소용없었던 것이다. 그 일을 겪은 해암이 시자에게 말했다.

“시자야, 의자 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려라.”
그때도 며칠 후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려 하자, 시자를 다시 불러 말했다.
“시자야, 끈으로 의자등받이에 내 허리를 매라.”
이를 본 젊은 대중들은 신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70대 노스님이 암자에서 안거하지 않고, 대중선방에서 단 한 시간도 빠짐없이 함께 옹맹정진하는 율공은 모습에 마음속으로 감복하지 않을 없었다. 힘 없는 정진은 해암이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했다. 해암은 대중에게 곧잘 다음과 같이 범문하곤 했다.
“해인사는 총림이니까 많이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적으로 많이 사는 것보다는 스님들이 적게 살더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방장이 되자마자 오후불식을 시작했지요. 오후불식 않고 삼시로 먹고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밥 많이 먹고는 공부하지 못합니다. 밥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밥이 그 사람의 몸을 좌우해요. 술 먹고 술 안 먹은 척할 수 있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져서 해태심 나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서 무슨 일이든 안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 보면 그 사람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관상법이 아니라도 아주 백발백중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밥 먹는 것이 공부하는데 첫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밥 많이 먹고는 공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공격하고 항의해도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다. 해인사 선방에 대중이 아주 적게 살더라도 오후불식 시키고, 적게 살더라도 좋으니까 올바르게 공부하려고 애쓰는 수좌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살더라도 올바르게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선방이 고 절이지, 많이 살더라도 밥만 먹고 사는 데라면 절이고 선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며칠 후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려 하자, 시자를 다시 불러 말했다.

“시자야, 끈으로 의자등받이에 내 허리를 매라.”
이를 본 젊은 대중들은 신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70대 노스님이 암자에서 안거하지 않고, 대중선방에서 단 한 시간도 빠짐없이 함께 옹맹정진하는 율공은 모습에 마음속으로 감복하지 않을 없었다. 힘 없는 정진은 해암이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했다. 해암은 대중에게 곧잘 다음과 같이 범문하곤 했다.
“해인사는 총림이니까 많이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적으로 많이 사는 것보다는 스님들이 적게 살더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방장이 되자마자 오후불식을 시작했지요. 오후불식 않고 삼시로 먹고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밥 많이 먹고는 공부하지 못합니다. 밥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밥이 그 사람의 몸을 좌우해요. 술 먹고 술 안 먹은 척할 수 있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져서 해태심 나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서 무슨 일이든 안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 보면 그 사람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관상법이 아니라도 아주 백발백중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밥 먹는 것이 공부하는데 첫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밥 많이 먹고는 공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공격하고 항의해도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다. 해인사 선방에 대중이 아주 적게 살더라도 오후불식 시키고, 적게 살더라도 좋으니까 올바르게 공부하려고 애쓰는 수좌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살더라도 올바르게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선방이 고 절이지, 많이 살더라도 밥만 먹고 사는 데라면 절이고 선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죽비를 치더라도 예의를 갖추시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뱉은 ‘예의’라는 말에 상황이 반전됐다. 찰종 수좌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고, 대중들은 ‘역시 큰스님이구나!’ 하고 신심을 냈다. 이 광경을 본 대중끼리 포행시간에 수군거렸다.
“다른 노스님 같으면 무색하고 창피하여 선방을 나갔을 것이요.”
“선방을 나가 두어 시간 동안 마음을 다스린 뒤 들어왔겠지요.”
“이런 일로 어느 노스님은 대중선방에서 다른 처소로 옮기신 적이 있긴 해요.”

해암은 후배 수좌들에게 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그렇다고 조는 모습을 굳이 숨기려고는 안 했다. 몸의 현상과 정신의 작용은 달랐다. 평생을 늙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눈사람이 녹는 것처럼 몸이 생리적으로 허물어졌다.

그러나 해암은 자신의 의지를 끊임없이 추스르곤 했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장군죽비를 든 수좌가 가까이 다가서면 한 걸음 전에는 반드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정신만은 깨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마저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부터인가는 의자를 선방 가운데 놓고 앉아 참선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자 앞으로 고꾸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시자가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몸이 앞으로 넘어지던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소용없었던 것이다. 그 일을 겪은 해암이 시자에게 말했다.

“시자야, 의자 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려라.”
그때도 며칠 후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려 하자, 시자를 다시 불러 말했다.
“시자야, 끈으로 의자등받이에 내 허리를 매라.”
이를 본 젊은 대중들은 신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70대 노스님이 암자에서 안거하지 않고, 대중선방에서 단 한 시간도 빠짐없이 함께 옹맹정진하는 율공은 모습에 마음속으로 감복하지 않을 없었다. 힘 없는 정진은 해암이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했다. 해암은 대중에게 곧잘 다음과 같이 범문하곤 했다.
“해인사는 총림이니까 많이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적으로 많이 사는 것보다는 스님들이 적게 살더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방장이 되자마자 오후불식을 시작했지요. 오후불식 않고 삼시로 먹고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밥 많이 먹고는 공부하지 못합니다. 밥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밥이 그 사람의 몸을 좌우해요. 술 먹고 술 안 먹은 척할 수 있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져서 해태심 나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서 무슨 일이든 안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 보면 그 사람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관상법이 아니라도 아주 백발백중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밥 먹는 것이 공부하는데 첫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밥 많이 먹고는 공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공격하고 항의해도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다. 해인사 선방에 대중이 아주 적게 살더라도 오후불식 시키고, 적게 살더라도 좋으니까 올바르게 공부하려고 애쓰는 수좌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살더라도 올바르게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선방이 고 절이지, 많이 살더라도 밥만 먹고 사는 데라면 절이고 선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란 모양과 바깥이치를 빌리고 이용해서 살펴 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만 따라가면 이치에 어긋나 버립니다. 또한 머리 쥐고 법복 입었다고 해서 스님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스님 노릇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스님인 것입니다.”

해암은 선방스님들을 경책하면서, 한편으로는 재가불자들에게도 참선공부를 지도했다. 열불과 기도에만 의지하는 재가불자들에게 정법을 선양하기 위한 교화방편이었다. 1981년에 원당암에 재가불자 선원을 개원하여 매년 여름과 겨울에 안거케 하고, 매월 첫째와 셋째 토요일에 철야 옹맹정진케 했던 것이다. 총림 안의 산중암자에서 재가불자 선원을 개원한 것은 해암의 단안이 아니면 불가능한 초유의 일이었다.

해암은 재가불자 선원 운영에 정성을 쏟았다. 선원 입구에 세운 글씨 한자 한자도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다. ‘달마선원(達磨禪院)’이란 글씨는 해암이 직접 진주 호국사로 가서 은초(隱樵) 정명수(鄭命壽) 선생을 만나 부탁했다. 정명수 선생은 한말 최고의 서예가였던 성파(星坡) 하동주(河東州) 선생에게 추사체를 익혔고, 진주성 축석투와 서장대 및 북장대 그리고 해인사 구광구와 해탈문 주련 등을 쓴, 구산과 일타와도 교우가 깊었던 서예가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명수 선생의 아들은 해암의 상좌가 되었다. 그가 바로 마흔이 넘은 나이에 원당암으로 출가하여 여든 밑에서 행자생활을 한 산청 율공사 주지 일화(一和)이다. 일화는 행자생활 중에 몸이 허약해 집으로 갔다가 다시 해인사로 돌아와 해암에게 사미계를 받고 선방으로만 7년 동안 진리의 구름(法雲)을 좇다가 그마저 병고로 접었던 것이다.

재가불자들에게 참선공부를 시키기 위해 원당암에 오른 해암은 영단(靈壇)이 있는 원당(願堂)에서 법문을 자주 했다. 영가의 위패들을 봉안한 법당에서 굳이 법문하는 이유는 산 사람뿐만 아니라 망자의 영가들도 참선하여 생사 해탈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해암은 산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간에 이승과 저승의 모든 사람들이 참선하여 해탈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계속>

해인사 선방 오후불식 가풍 해암 스님이 세워

“일대사 해결하려는 이가 고비 넘기지 못하는데서야...”

재가자 선원 운영에 정성... 매월 두 차례 철야정진

했습니다. 은사스님께서 저녁밥은 독이라고 했습니다. 장좌불와는 못했지만 저도 은사스님의 지시대로 3년 동안 오후불식은 지켰습니다. 해보니 한 달이 고비였습니다.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몸이 가볍고 잠도 잘고 해서 공부하는데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인사 선방의 오후불식은 1년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전국의 선객들에게 소문이 돌아 오후불식을 지켜낼 수좌들만 해인사를 찾아왔으므로 해암의 정진 가풍은 저절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대중들에게 오후불식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일주일 옹맹정진이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옹맹정진이었다.

“은사 스님은 대중과 똑같이 결제를 하셨습니다. 대중생활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럽습니다.

넘기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됩니까. 옹공로에서 별갈게 단련된 쇠라야만 금강보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들을 부처님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단련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해암 자신이 오대산에서 어떻게 공부하던 얘기를 하여 공부에 대한 용맹심이 솟게 했다.

“옛날 오대산 한암 노스님 회상에서는 김치를 금치라 했습니다. 겨울 내내 김치 한 가지로 공양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귀해 금치라 했소. 대중이 헛뜨게 많이 먹을까봐 조금에 저러다시피한 김치였어요. 한암 노스님께서서는 밤이 되면 물레 김치독으로 가 소금을 한 바가지씩 부었어요. 그러니 김치 맛은 짜다 못해 쓴맛이 났습니다. 그런 김치 한 쪽이면 밥을 세 숟가락도 더 먹었지만 그것도 고마워하며 불평 한 마디 없이 공부들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양간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를 얼마나 잘해줍니까.”